

“이방의 연구 닦을려... 사료 고증 힘모아야”

‘이방의 표해록과 한중 문화교류연구’ 한·중 국제학술대회

선구적 활동 권무일 작가 이방의 유품 발굴 등 주문
중 학자 “청 번성기 목격
최부 표해록과 비교 연구”
정조와 이방의 관계 규명
해류 등 학제간 연구 필요



지난 19일 제주대에서 열린 이방의 표해록 한·중 국제 학술대회 발표자와 토론자, 후원 기관장 등이 개막식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중국학회 제공

‘북촌 사람’ 이방의 존재를 일깨운 자리였다. ‘표류학’ 연구에 대한 주문에서 제주와 중국 복건성, 절강성이 공동 연구에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에 8시간 넘게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제주대 아라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방의 표해록과 한·중 문화교류 연구’ 한·중 국제 학술대회다.

제주중국학회(회장 심규호)와 이방의학회(회장 권무일)가 주최하고 제주학연구원, 제주중국총영사관, 제주문화포럼, 한라일보가 공동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1796년 지금의 대만 평호도에 표착한 뒤 중국을 거쳐 8개월 여만에 귀환한 제주인 이방의 다른 첫 학술대회였다. 마침 이날은 이방의를 낫선 땅으로 이끈 표류 기점일(음력 9월 21일)로 추정되는 날이었다.

이방의를 ‘발굴’ 했다는 평가를 받는 권무일 작가를 시작으로 심규호 제주국제대 석좌교수, 이두석(李斗石) 중국 복건사범대학 복청분교 외국어학원 교수, 천용(千勇) 절강대 한국연구소 교수, 김경옥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 교수, 진선희 한라일보 기자의 발표가 잇따랐고 박찬식 역사학자, 김중섭 제주대 교수, 임동춘 제주대 교수는 지정 토론자로 초청됐다. 청중 토론, 축사 등을 합쳐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발문 순서대로 신는다.

▷ **평촌타이(주)제주중국총영사**=세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최부, 장한철, 이방의 등 제주와 관련된 표해록, 표류기가 많은 제주에서 표류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고서만이 아니라 이방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新) 중국 기행을 통해 연구하고 교류하는 작업이 이

루져야 한다. 셋째,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경제·관광 교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권무일**= 그동안 이방의는 제주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전해지는 이방의의 표해록은 기행과정의 상세한 기록과 솔직한 표현을 감안하면 이방의의 흔을 누누가 필사하고 짐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방의의 지나간 노정을 따라 제도·문물·풍속·인정·고적 등의 현상을 답사하며 행적을 확인했다. 이제 작은 불씨를 지핀 만큼 이방의 연구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길 기대한다. 내년 동정호·약양루 등 양자강 탐방, 이방의 유품과 신도비 발굴, 한·중 교차 학술 교류, 이방의학회 공식 발족, 중국 탐방기 발간은 과제로 남겨둔다.

▷ **심규호**= 이방의의 귀환한 길과 주자의 구도의 길에 대한 비교 연구를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방의의 거처간 복건성 건양구는 건본(建本)의 고향으로 이를 통해 한중 문화교류의 일단을 찾아보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조를 중심으로 현존했던 인물도 어떻게 신앙이 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싶다.

▷ **이두석**= 이방의는 청나라에서 가장 번성했던 강희, 건륭제 시대를 목격한 첫 번째 조선인이다. 이방의 표해기를 통해 청조의 대외정책이 개방적이고 이웃나라와 외국인에게 우호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표해기에 나오는 일부 지명, 옛 터는 좀 더 고증해야 한다. 이방의의 지난 복건성내 경로는 전체 노정이 1011km이고 육로가 442km, 수로가 569km이다.

박지원의 ‘서이방의사’에는 하문에서 복건성까지 1600리라고 했는데 실제 거리는 779리다.

▷ **박찬식**= 이방의는 조선 500년을 통틀어 고득종을 제외하고 고위직에 오른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치밀한 인물 연구와 더불어 정조와 이방의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해보인다. 특히 정조 대 김만덕과 이방의 두 인물이 활동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역사학계에서 좀 더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김중섭**= 이방의의 동정호를 직접 찾았는지는 의문이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문학작품으로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평호도의 마군대인은 그 지역의 높은 관리를 일컫는 말인 것 같고, 고려체는 고려와 연관있기 보다는 양배추가 대만에 전해지는 과정에 그 발음이 ‘고려’와 비슷한 데서 유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천용**= 중한 해상교류 연구는 고대 시기에 중국 강남과 한국 사이의 인종융합, 문명발전, 문화교류 등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절강대 1993년 한국연구소 건립 이래 중한 해상 옛목 표류탐험 등을 진행해왔고 22권의 학술 저서, 수십 편의 논문을 출간, 발표했다. 최부 표해록 연구를 통해선 중·한 경제무역 발전 구상 등을 제기했다. 제주는 고대 해양교류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방의는 최부 표해록과 비교 연구가 필요해보인다.

▷ **진선희**= 제주항토문화예술 중·장기계획(2013~2022)에는 제주 표류사 DB를 구축하자는 과제가 있다.

외국인의 제주 표류사, 제주인의 외국 표류사를 담자는 것인데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다. 절강대, 목포대처럼 지역 대학이 제주 해양문화 연구의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

▷ **김경옥**= 청나라 건륭제(1736~1795) 시기 표류 사고가 응징제 때에 비해 3배나 급증한 건 그만큼 중국인들의 해상 활동이 활발했음을 입증해준다. 건륭제는 표류민 구출에서 조공국이든 비조공국이든 구분 없이 후하게 대접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조선의 관원과 중국 표류민 간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문건인 ‘문정별단’을 보면 17세기에는 중국이 해군력을 선언한 이후 상선에 부과한 세금 등 중국 정보를 수집했다. 18세기에는 중국의 농사 작황 등 실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

▷ **임동춘**= 무동력 상태의 어선이 표류하는 과정을 알리면 해류를 들여다봐야 한다. 표류 연구에서 해양 조류 전공자 등 융복합 연구가 절실한 이유다.

▷ **홍기표**= 지금까지 발굴된 이방의 사료에 대한 고증 작업이 뒤따라야 그간의 선구자적인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최부 표해록이 중국 3대 기행문으로 알려지기까지 20년 가까운 연구가 바탕이 되었듯 우리 역시 차분하게, 치밀하게 연구를 이어나가야 한다. 논제가 쌓이며 학계에 알려지고 대중에 접근할 때 기념비 같은 사업 추진도 자연스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이 그 첫발을 내딛는 시간이라고 본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이번주(10월 21~27일) 무대 & 미술

서귀포 작가가 품은 바다와 한라산

고순철·오민수 작가 개인전
서귀포예술의전당서 나란히

서귀포의 두 작가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나란히 개인전을 이어가고 있다. 고순철 개인전과 오민수 개인전이다.

고순철 작가는 ‘풍고풍하(風高風下)-해(海)를 품다’란 제목을 단 여섯 번째 개인전에서 잔바람을 견디며 개갯(바닷가)에서 특유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식물과 더불어 ‘갯길’을 펼쳐놓고 있다. 오민수 작가는 ‘산수유람-한라산’이란 이름으로 개인전을 준비했다.

<공연>

▷ 서귀포 색소폰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10월 22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010-3925-1999.

▷ 금강불음봉사단 합창=10월 22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3778-0008.

▷ 극단 파수꾼 ‘51 대 49’=10월 22~23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755-0904.

▷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연주회=10월 23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2745.

▷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연주회=10월 24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2494.

▷ 연극술사 수작의 ‘햄릿-더 블라인드’=10월 24~26일 아라뮤즈홀. 754-4697.

▷ 서울 극단 춘추의 ‘올 엄마 그리기’=10월 25일 오후 3시와 7시30분 한라아트홀. 755-0904.

▷ 울소리 난타 공연=10월 25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2172-1359.

▷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연주회=10월 25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2776.

▷ 오카리나 경연대회=10월 26일 오후 1시 제주아트센터. 010-3690-2749.

▷ 숲속 힐링 콘서트 노고록이=10월 26일 오후 2시 사려니숲길 북은오름 입구. 760-3067.

▷ 개관 50주년 ‘함께해서 더 좋은날’=10월 26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4243.

▷ 출판국 ‘신명세상 처드리세’=풍물굿패 신나락 주최 10월 26일 오후 3시 문예회관. 010-6396-5854.

▷ 연극 ‘두 영웅’=제주도문화진흥원 주최로 10월 26일 오후 5시 문예회관. 710-7643.

▷ ‘바다로 가는 해녀’ 이연심의 해녀춤=10월 26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9818-7557.

▷ 극단 이어도 ‘원위치’=10월 26일 오후 7시30분, 27일 오후 3시 미예랑소극장. 755-0904.

▷ 라온뮤지 정기 공연=10월 27일 오후 3시 문예회관. 010-2966-6633.

▷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10월 27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3222-8278.

▷ 제주아트콰이어 ‘제주민, 스머들로’=10월 27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010-8560-8561.

<전시>
▷ 2019대한민국건축문화제 순회전=10월 22~11월 3일 산지천갤러리. 725-1208.

▷ 제주·인천 문화교류전=10월 24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 동심목연전=10월 24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 제주전업미술가회 회원전=10월 24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 정현준 개인전 ‘흙 놀이’=10월 25일까지 현인갤러리. 741-1500.

▷ 박현영 교수 정년퇴임전=10월 26~31일 문예회관. 710-7633.

▷ 제주·일본 신화 교류전=제주 문화포럼 주최 10월 26~31일 문예회관. 710-7633.

▷ 오민수 개인전=10월 26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010-2695-1884.

▷ 고순철 개인전=10월 26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010-2690-3004.

▷ 크리스 조던의 ‘아름다운 너머’=10월 27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 710-7801.

▷ 개관 50주년 기념 아카이브 소장품전=10월 27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4245.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 토종 글로벌
나눔에너지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 토종기업 나눔에너지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제주도청

한화 Q-CELL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Q-CELL) 제주도 쿠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